

## 이코노 &amp; 비즈 피플

## 마이클 윌슨 '홀리데이인 광주' 총지배인

## “광주와 세계 잇는 교량역할에 최선”

세계 각국 호텔 진두지휘한 베테랑 호텔리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라. 꿈 이룰수 있다”



“지역민에게 세계적 수준의 호텔 문화를 전달하고 광주가 국제 행사 유치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윌슨 (Michael Wilson) 총지배인이 광주에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오는 2월 13일(예정)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홀리데이인 광주는 전 세계 4500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호텔체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이 위탁 경영하는 특급 호텔이다.

윌슨 총지배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퍼지, 베트남,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그룹의 호텔과 유명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역임한 베테랑 호텔리어이다.

마이클 윌슨 총지배인은 “지방

수준의 (호텔) 인프라는 국제적 문화를 전달하고 광주가 국제 행사 유치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등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호텔 오픈으로 광주가 손님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음식 재료와 특색있는 음식이 다양해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음식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함께

것은 호텔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였지만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스스로 발전하려는 열정적인 모습이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비즈니스와 인적 네트워크, 서울과 광주, 광주와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가 2011 세계환경포럼, 2013 세계공예엑스포, 2014 수소에너지 대회, 2015 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5성급 호텔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 도 밝혔다.

그는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음식 재료와 특색있는 음식이 다양해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음식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함께

쇼핑시설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국제적인 행사 등을 유치한다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슨 총지배인은 호텔 커피숍 웨이터로 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세일즈 마케팅, 금융 등 맡은 분야마다 인정을 받아 승진을 거듭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호텔리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도전했고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거듭한 끝에 지금의 기회를 얻었다”며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장, 우리쌀 죽&수프 등 다양한 제품에 국산 쌀이 들어갔다.

밀가루를 다양 사용하는 라면, 제과

업계도 꽤 많은 쌀을 소비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이 밀이나 수입 쌀보다 비싼 재료인 국산 쌀 제품을 늘리는 것은 영양과 소화 측면에서 더 낫다는 소비자 인식이 퍼져 있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 삼화저축銀 인수전에 우리·하나·신한지주 참여

## 내달 중순 우선협상자 선정

최근 영업정지 당한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참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3개 금융지주는 마감일인 이날 중 인수의향서(LOI)를 낼 예정이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관계자는 “LOI를 내고 실사를 한 뒤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층은 “아직 LOI를 낼지 최종 결정은 안됐지만, 마감 전에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LOI 마감 이후 실사 대상자를 선정해 3주간 실사 기회를 준 뒤 다음 달 중순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지주와 부실 저축은행간 ‘짬짜기’가 성공할 경우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작년 증시대금 6640조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채권 매매결제, 펀드 설정·환매 등 증시 관련 대금이 6640조원으로 2009년 6124조원에 비해 8.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식·채권 매매결제 대금은 5258조 원으로 전년(4746조원)보다 10.8%, 펀드 관련 대금은 493조원으로 전년(366조원)에 비해 34.7% 각각 늘었다.

예탁원 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관련 대금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증시관련 대금은 2003년 1382조원, 2004년 2157조원, 2005년 2527조원, 2006년 3092조원, 2007년 3609조원, 2008년 4505조원 등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지역 백화점 설 연휴 이틀 쉰다

## 일부 대형마트 설날 영업

해 영업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일부는 설에 휴점하

고 일부는 문을 연다.

신세계 이마트 내달 3일 휴점

하며 연장 영업을 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동광주점은 설 당

일인 다음달 3일에도 정상 영업

을 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

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롯데마트 상무점도 다음달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

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폐점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룰 예정이다.

/이민기자 emlee@kwanju.co.kr



## 지역 농특산물을 보다 싸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동구 KT정보통신센터 광장에서 ‘설맞이 농촌사랑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사과·배·한리봉·메론·참다래 등 각종 농산물 선물세트를 시중가격보다 최고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ju.co.kr

## 웰빙 바람에 쌀 소비량 ‘껑충’

식품업계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쌀 소비량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전 제품에 사용한 쌀은 1만6000t으로, 7800t이었던

2009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 사용량 가운데 절반 가량인 7500t은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에 쓰였다.

이밖에도 카레여왕, 순쌀로만 3번 발효한 순발효초, 우리쌀 미소장국 된

장, 우리쌀 죽&수프 등 다양한 제품에 국산 쌀이 들어갔다.

밀가루를 다양 사용하는 라면, 제과업계도 꽤 많은 쌀을 소비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이 밀이나 수입 쌀보다 비싼 재료인 국산 쌀 제품을 늘리는 것은 영양과 소화 측면에서 더 낫다는 소비자 인식이 퍼져 있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

국산 쌀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어린

이 전용 식품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일반 제품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실제 매출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쌀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올해 작년보다 66.7% 많은 1만100t의 쌀을 계획이다. 청정원은 올해 쌀 소비량을 작년 대비 25% 많은 2만t으로 잡고 있다.